MEIC 해운거래정보센터
Maritime Exchange Information Center

Test Volume 72
Aug 14th, 2013

MEIC Dry Bulk Weekly Report

본 Weekly Report는 정식 배포를 위한 테스트 버전입니다.

www.meic.kr

MEIC 평균용선료 (단위:USD/DAY)

구 분	JUN-13	JUL-13	증감	08-AUG	13-AUG	증감
케이프	8,720	13,858	▲5,138	14,170	13,958	▼ 212
파나막스	6,280	8,276	▲1,996	8,151	8,216	▲ 65
수프라막스	10,295	11,070	▲ 775	10,557	10,481	▼ 76
핸디	6,524	6,821	▲ 297	6,737	6,730	▼ 7

선박 연료유 가격 (단위:USD)

항만명		08-AUG	13-AUG	증감
IFO380	로테르담	597.0	596.5	▼ 0.5
	싱가포르	601.0	602.5	▲ 1.5
	부산	624.5	623.0	▼ 1.5
	지브랄타	621.5	616.5	▼ 5.0
	홍콩	615.5	619.5	▲ 4.0
MDO	로테르담	890.0	872.5	▼17.5
	싱가포르	913.5	919.5	▲ 6.0
	부산	949.5	943.0	▼ 6.5
	지브랄타	964.5	951.5	▼13.0
	홍콩	930.0	931.0	▲ 1.0

해운시황

케이프		파나막스		수프라막스		핸디	

MEIC 선가 / 운임지수

※ ☆: 신설 또는 수정 항로

MEIC 중고선 가격 (단위:DWT,USD백만)

선형	RESALE	5Y	10Y
케이프 (180K)	42.50	33.08	20.92
파나막스 (74K)	28.42	21.12	15.23
수프라막스 (58K)	26.50	20.93	15.25
핸디 (33K)	21.80	17.42	12.71

MEIC 신조선 가격 (단위:DWT,USD백만)

선형	PRICE	
케이프	180K	47.13
파나막스	74K	26.13
	82K	27.45
	92K	28.45
수프라막스	58K	24.88
	64K	25.75
핸디	33K	21.58

	항로번호	항로	운임 (USD/TON)	항로번호	항로	용선료 (USD/DAY)
CAPE	MC1	Saldanha Bay-Qingdao	14.26	MC6	PRC/Japan-Brazil-PRC/Japan	12,300
	MC2☆	W.Australia-Qingdao	8.27	MC7☆	PRC/Japan-E.Australia-PRC/Japan	12,540
	MC3	R.Bay-Qingdao	13.15	MC8☆	A.R.A/Gib-Bolivar-A.R.A/Gib	6,780
	MC4☆	Newcastle-Zhoushan	11.81	MC9☆	A.R.A/Gib-USEC/Canada-PRC/Japan	24,210
	MC5☆	Tubarao-Qingdao	19.81			

	항로번호	항로	용선료 (USD/DAY)	항로번호	항로	용선료 (USD/DAY)
P'MX	MP1☆	S.PRC-Indonesia-S.PRC	6,000	MP5☆	Busan-CIS-N.PRC	6,213
	MP2	F.EAST-Australia-EC India	6,475	MP6☆	Passing Gib-USG-F.EAST	15,375
	MP3☆	PRC-NOPAC or Australia-PRC	6,300	MP7☆	Passing Gib-USG-Skaw/Passero	9,413
	MP4	S'pore-ECSA-F.EAST	7,975			

	항로번호	항로	용선료 (USD/DAY)	항로번호	항로	용선료 (USD/DAY)
S'MX	MS1☆	PRC-NOPAC or Australia-PRC	7,500	MS5☆	S.PRC - Indonesia - EC.India	7,900
	MS2	USG-S'pore/Japan	20,267	MS6☆	S.PRC - Indonesia - PRC	7,850
	MS3	CJK via Indonesia/Phil- PRC (Nickel Ore)	7,900	MS7☆	USG-Skaw/Passero	18,633
	MS4	S'pore/Japan-USG	3,317			

	항로번호	항로	용선료 (USD/DAY)	항로번호	항로	용선료 (USD/DAY)
HS	MH1	F.EAST-SE Asia	6,333	MH4☆	Busan-CIS-F.EAST	6,083
	MH2	PG-WC India-F.EAST	6,933	MH5☆	Skaw/Passero-USG-Skaw/Passero	7,867
	MH3	S.PRC-SE Asia-F.EAST	6,433			

목 차

주간 동향 2
케이프 3
파나막스 4
수프라막스/핸디 6
FFA 8
원자재 9
선박 연료유 13
항만 동향 14
선박매매 동향 15
신조선 16
중고선 17
선박해체 18
세계 건화물 선대 19
세계 경제 20
주간 이슈 21
MEIC 포커스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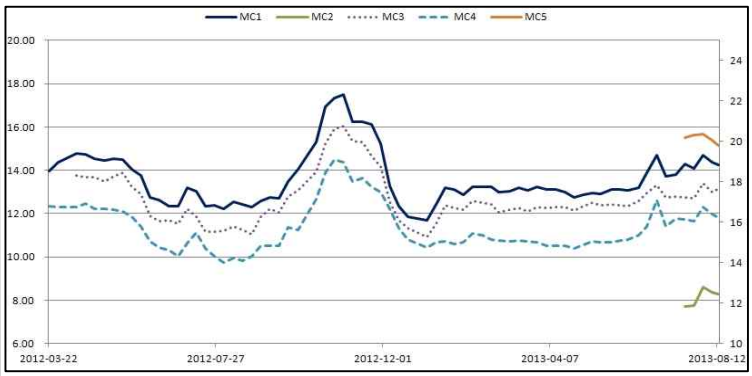
주간 동향

◎ 태평양 중심으로 회복세 전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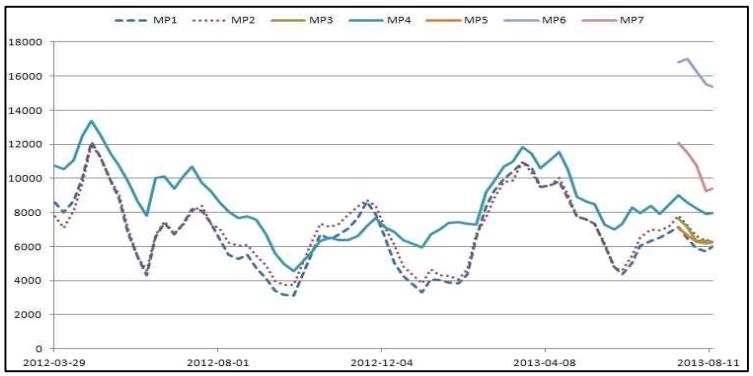
- 이번 주 건화물 시장은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태평양 수역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선형에서 전주 대비 운임 회복세를 보였으며, 대서양 수역은 T/A R.V항로의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되면서 운임 약보합세를 이어갔다.
- 특히 계절적 비수기로 인해 한때 BDI가 1,000P이하로 하락하는 등 한동안 운임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운임 시장의 저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그 결과 이번 주 들어 FFA와 현물 시장 모두 호가가 상향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 한편, 33척의 벌크선대를 보유중인 Diana Shipping이 현재 운임 시장은 손익분기점 이하의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과거 1958년, 1974년, 1985년의 장기 불황과 비교 해봐도 끝이 언제 인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운임 시장이 선박 계선을 확대할 시기이며, 이번 시즌 벌크선의 해체 감소는 2014년 시장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상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 다음 주 건화물 시장은 철광석과 석탄 물동량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태평양 수역은 운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서양 수역은 미국 곡물 시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8월 말까지 당분간 약보합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MEIC 평균 용선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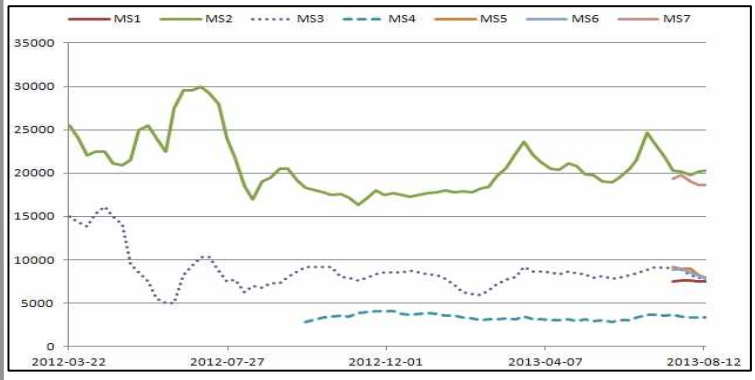
MEIC 케이프 항로별 운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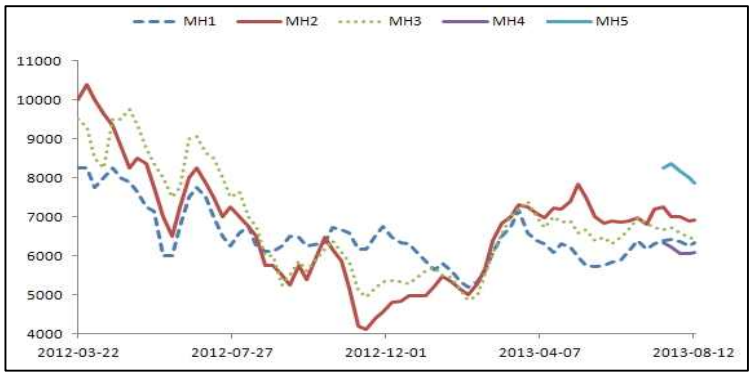
MEIC 파나막스 항로별 용선료 추이



MEIC 수프라막스 용선료 추이



MEIC 핸디 용선료 추이



케이프

◎ 신규 수요 회복, 저점 인식 확산 ◎

- 이번 주 케이프 시장은 지난 주 휴일로 인해 거래량이 제한되었던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이 시장에 복귀하면서 화요일 이후 철광석 물동량 회복과 함께 반등세로 전환되었다.
- 태평양 수역에서는 월요일까지 약세를 보이던 서호주 철광석 운송시장이 화요일부터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였으며, 리차드베이-극동 석탄 운송시장의 경우 타이트한 공급 상황과 함께 운임 상승세를 보이는 등 대부분의 항로에서 타이트한 공급 상황과 함께 운임 회복세를 나타냈다.
- 대서양 수역 역시 8월말 선적 기준 Tubarao-Qingdao 철광석 운송거래가 화요일 이후 다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즉시 이용가능한 선복의 경우 USD20/Ton 수준까지도 운임 회복세를 보였다. 또한 지난 주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던 콜롬비아 Bolivar 수출항로 역시 선주들의 호가 조정을 통해 안정세로 전환되었다.
- 한편, 중국의 7월 철광석 수입량이 전월대비 1,080만톤 증가한 7,310만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난 7월 케이프 운임 상승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로서 지난 7개월간 총 수입량은 4억 5,700만톤으로 월평균 수입량을 환산하면 산술적으로 이번 시즌 7억 8,300만톤의 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SSY는 4분기부터 철광석 수입량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시즌 총 수입량이 7억 9,500만톤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케이프선의 주요 화물인 철광석 물동량은 견고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다음 주 케이프 시장은 서호주와 브라질을 중심으로 철광석 신규수요가 증가하면서 타이트한 공급 상황과 함께 운임 시장 역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MEIC 용선료 및 운임

항로번호	항로상세	JUN	JUL	08-AUG	13-AUG	변동
MC1	160,000MT Saldanha Bay-Qingdao	13.70	13.98	14.38	14.26	▼ 0.12
MC2	160,000MT W.Australia-Qingdao	-	-	8.38	8.27	▼ 0.11
MC3	150,000MT R.Bay-Qingdao	12.79	12.74	13.00	13.15	▲ 0.15
MC4	130,000MT Newcastle-Zhoushan	11.46	11.63	11.97	11.81	▼ 0.16
MC5	160,000MT Tubarao-Qingdao	-	-	20.05	19.81	▼ 0.24
MC6	PRC/Japan-Brazil-PRC/Japan	8,720	11,898	12,840	12,300	▼ 540
MC7	PRC/Japan-E.Australia-PRC/Japan	-	-	12,900	12,540	▼ 360
MC8	A.R.A/Gib-Bolivar-A.R.A/Gib	-	-	6,740	6,780	▲ 40
MC9	A.R.A/Gib-USEC/Canada-PRC/Japan	-	-	24,200	24,210	▲ 10
	T/C Average(180,000DWT)	-	-	14,170	13,958	▼ 212

현물시장

구분	BID	OFFER	격차
Tubarao-Rotterdam	8.45	9.00	0.55
W.Aus-Qingdao	8.75	9.00	0.25
Tubarao-Qingdao	19.75	20.25	0.50
R.bay-Rotterdam	8.50	8.75	0.25
S/PERIOD	14,000	15,500	1,500
1 YEAR	14,250	15,500	1,250
3 YEARS	15,500	17,500	2,000
5 YEARS	18,000	20,000	2,000
10 YEARS	18,500	20,500	2,000

정기용선계약

구분	VSL NAME	DWT	BUILT	DEL	REDEL	LAYCAN	DETAILS	HIRE (USD/DAY)	CHARTERER
F/HAUL	Shagangfirst Power	179,527	2011	Immingham	S'pore-Japan	Spot	T/A round	6,500	Cargill

항해용선계약

구분	VSL NAME	CARGO Q'TY	L/PORT	D/PORT	LAYCAN	FRT (USD/TON)	TERMS	CHARTERER
F/HAUL	Coalmax	180,000/10	Tubarao	Qingdao	31Aug/5Sept	19.65	Scale/30,000shinc	Oldendorff
	Fernandina	160,000/10	Tubarao	Qingdao	End Aug	19.6	Scale/30,000shinc	Vale
	TBN	160,000/10	Tubarao	Qingdao	End Aug	19.25	Scale/30,000shinc	Noble
태평양	Glory Claire RGL relet	160,000/10	Dampier	Qingdao	27/31Aug	8.35	Scale/30,000shinc	Rio Tinto
	TBN	160,000/10	Dampier	Qingdao	26/30Aug	8.6	Scale/30,000shinc	Rio Tinto
	K.Adventure	160,000/10	Dampier	Qingdao	21/24Aug	8.45	Scale/30,000shinc	Rio Tinto
	Trinity Star	160,000/10	Dampier	Qingdao	20/29Aug	8.05	Scale/30,000shinc	Noble
	Anangel Sun	110,000/10	Port Hedland	Qingdao	22/28Aug	11.0	Scale/30,000shinc	Atlas
B/HAUL	TBN	150,000/10	Richards Bay	Rotterdam	1/10Sept	8.75	Scale/30,000shinc	Vitol

파나막스

◎ 태평양 반등, 수역간 차이 발생 ◎

- 이번 주 파나막스 시장은 태평양 수역의 경우 호주 석탄 물동량 증가와 함께 대부분의 항로에서 반등에 성공하였으나, 대서양 수역은 여전히 미국걸프와 남미 신규수요가 제한되면서 약보합세를 이어갔다.
- 태평양 수역에서는 호주와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로 향하는 석탄 신규 수요 증가 영향으로 대부분의 항로에서 운임 회복세를 보이는 등 시장이 안정감을 되찾아가고 있다.
- 그러나 대서양 수역은 여전히 미국걸프와 남미에서 유럽지역으로 향하는 T/A R.V 항로의 신규수요가 제한되면서 공급과잉과 함께 운임 약보합세가 계속되고 있다. 일부 Baltic R.V와 같은 Short Haul 비즈니스가 거래되고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 한편, 중국이 옥수수 시장에서의 수입처를 다변화하면서 흑해산 수입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연간 총 곡물 소비량은 2억 2,400만톤에 육박하며, 최근 들어 기존 주요 수입품목인 대두 이외에도 소맥과 옥수수까지 수입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수입국 역시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흑해나 호주산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1만 마일 이상의 항해거리로 인해 톤마일 효과가 큰 미국-중국항로 대신 8,500마일 수준의 흑해-중국항로 물동량이 증가하는 점은 동 항로에 주로 투입되는 파나막스 선형의 공급흡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다음 주 파나막스 시장은 석탄 운송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태평양 수역은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서양 수역은 곡물 신규 수요 제한 영향으로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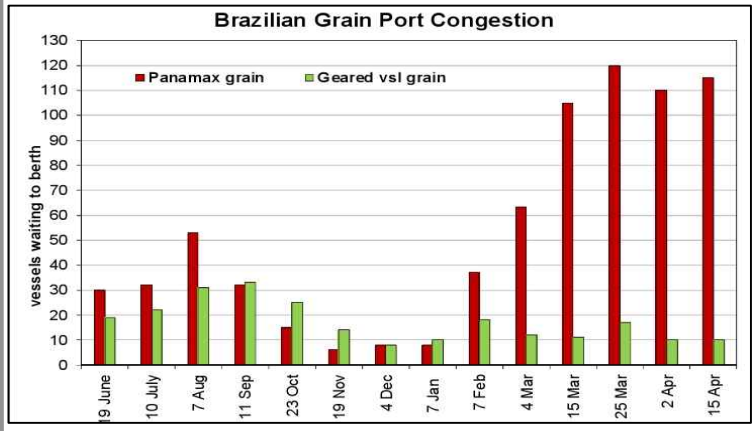
MEIC 용선료

항로번호	항로상세	JUN	JUL	08-AUG	13-AUG	변동
MP1	S.PRC-Indonesia-S.PRC	5,447	6,744	5,713	6,000	▲ 287
MP2	F.EAST-Australia-E.C India	5,900	7,291	6,319	6,475	▲ 156
MP3	PRC-NOPAC or Australia-PRC	-	-	6,338	6,300	▼ 38
MP4	S'pore-ECSA-F.EAST	7,978	8,485	7,925	7,975	▲ 50
MP5	Busan-CIS-N.PRC	-	-	6,175	6,213	▲ 38
MP6	Passing Gib-USG-F.EAST	-	-	15,538	15,375	▼ 163
MP7	Passing Gib-USG-Skaw/Passero	-	-	9,275	9,413	▲ 138
T/C Average(74,000DWT)		-	-	8,151	8,216	▲ 65

현물시장

구분	BID	OFFER	격차
T/A R.V	8,500	9,250	650
PAC R.V	5,950	6,850	1,000
TRIP F.EAST	14,000	15,000	1,000
TRIP EUROPE	-500	-100	500
S/PERIOD ATL	11,000	12,500	1,500
S/PERIOD PAC	7,750	8,500	750
1 YEAR ATL	8,750	9,750	1,000
1 YEAR PAC	8,250	8,750	500
2 YEARS	8,500	9,500	1,000
3 YEARS	9,000	10,500	1,500
5 YEARS	10,000	11,500	1,500

브라질 곡물 수출항만 체선 동향



MEIC 파나막스 VS 수프라막스 평균용선료 비교

정기용선 계약

구분	VSL NAME	DWT	BUILT	DEL	REDEL	LAYCAN	DETAILS	HIRE (USD/DAY)	CHARTERER
대서양	NS Yukutia	74,518	2013	Liverpool	Ghent	14/16Aug	Trip via Klaipeda int fertilizers	8,800	Cargill
	BBG Bright	82,042	2012	Recalada	Skaw-Cape Passero	11/16Aug	Trip	9,000+350,000(BB)	Oldendorff
	Coral Amethyst	78,092	2012	Hamburg	Skaw-Cape Passero	11/16Aug	Trip via Baltic	9,500	CNR
F/HAUL	Clymene - GMI relet	73,600	2006	Stade	China	18/22Aug	Trip via Murmansk	15,500	Aquavita
	Woolloomooloo	76,097	2012	Hamburg	S'pore-Japan	11/14Aug	2/3LLS vis Brazil	14,000	Bunge
	Assimina	72,126	1997	US Gulf	S'pore-Japan	24/29Aug	Trip int grain	14,900+490,000(BB)	CNR
	London 2012	82,562	2007	Port Said	India	24/26Aug	Trip via Black Sea int metcoke	19,500	Aquavita
	Tyana	82,158	2010	Southwest Pass	S'pore-Japan	18/23Aug	Trip	15,500+500,000(BB)	Oldendorff
태평양	Aspasia Luck	73,726	2000	Tianjin	S'pore-Japan	07-Aug	Trip via US Gulf	7,000	CNR
	Constantinos G.O	87,000	2011	Dandong	India	Ppt	Trip via EC Australia	6,500	CNR
	Guan Hai 228	68,870	1989	EC Australia	India	12/14Aug	Trip	7,000+300,000(BB)	Sinochart
	RYSY	79,602	2011	Zhoushan	S'pore-Japan	Spot	Trip via EC Australia	6,000	CNR
	Trina Oldendorff	75,000	2013	Dalian	S'pore-Japan	12/14Aug	Trip via EC Australia	6,000	Diamond Bulk
	Boreal	74,181	2002	Hong Kong	India	13/15Aug	Trip via Indonesia	7,500	CNR
PERIOD	Santa Rosalia	75,886	2008	Kinuura	WW	25/30Aug	8/10MOS	8,500	Oldendorff
	Maverick Guardian	82,966	2012	Fangcheng	WW	7/12Aug	4/6MOS 1st cargo Fangcheng/US Gulf	10,000	PCL
	Bulk Portugal	82,224	2012	Beihai	WW	21/24Aug	4/7MOS	10,500	Chinese grain chrtr

항해용선 계약

구분	VSL NAME	CARGO Q'TY	L/PORT	D/PORT	LAYCAN	FRT (USD/TON)	TERMS	CHARTERER
대서양	TBN	60,000/10	Riga	Dunkirk & Ghent	14/28Aug	10.5	20,000/20,000/22,000shinc	ArcelorMittal
	Kapetan Trader Ⅱ	70,000/10	Baltimore	ARA	21/30Aug	11.5	25,000shinc bends	Cobelfret
	TBN	60,000/10	Mo-I-Rana	Ijmuiden & Immingham	12/17Aug	7.1	5days shinc	Tata
	Achilles Ⅱ	59,000/10	Kamsar	San Ciprian	17/23Aug	11.0	24,000/15,000shinc	Quadra
F/HAUL	Medi Venezia	60,000/10	Novorossiyk	Jeddah	15/20Aug	23.75	10,000/5,000shex	Louis Dreyfus
	TBN	60,000/10	Kamsar	Longkou	21/27Aug	32.0	24,000/18,000shinc	Cobelfret
B/HAUL	Ultrabulk TBN	70,000/10	Roberts Bank	Sepetiba	27Aug/6Sept	11.8	35,000/25,000shinc	TKSE

수프라막스/핸디

◎ 항로별 차별적인 운임시장 형성 ◎

- 이번 주 수프라막스/핸디 시장은 인도네시아, 남미와 같은 대표항로에서는 신규수요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니켈광석, Pet Coke 운송시장의 경우 소폭의 운임 회복세를 시현하는 등 항로별 차별적인 운임시장을 나타냈다.
- 태평양 수역에서는 여전히 인도네시아 석탄 신규수요가 제한적이지만, SE Asia-극동 니켈광석 거래와 극동 지역 철강제품 운송 수요 등이 회복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 대서양 수역은 남미 곡물 수요 침체 영향으로 여전히 신규수요가 제한된 가운데 미국-극동 Pet Coke 운송 거래 등 F.HAUL 항로는 양호한 시장 상황을 나타냈다.
- 한편, 미국 곡물 시장은 기존 미시시피강을 출발하여 파나마운하를 경유해 극동으로 운송되던 주요 항로 대신, 점차 미국 서안에서 극동으로 직접 연결되는 NOPAC항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카길을 비롯한 미국 곡물 업체들은 포틀랜드 등 미국 서안지역에 곡물 기지를 구축하여 기존 미국 걸프를 통한 항로보다 수송기간을 단축시켜 아시아 곡물 수출비중을 증대할 방침이다. 그 결과 짧아진 항해거리 영향으로 파나막스선 보다는 수프라막스 이하 중소형 선의 곡물 수송 비중이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다음 주 수프라막스/핸디 시장은 전체적인 운임 시장의 저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운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항로별로는 인도네시아-인도 석탄 수출이 회복되면서 태평양 수역의 운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MEIC 수프라막스 용선료

항로번호	항로상세	JUN	JUL	08-AUG	13-AUG	변동
MS1	PRC-NOPAC or Australia-PRC	-	-	7,533	7,500	▼ 33
MS2	USG-S'pore/Japan	21,525	21,417	20,133	20,267	▲ 134
MS3	CJK via Indonesia/Phil - PRC (Nickel Ore)	8,342	9,046	7,933	7,900	▼ 33
MS4	S'pore/Japan-USG	3,263	3,571	3,350	3,317	▼ 33
MS5	S.PRC-Indonesia-EC.India	-	-	8,233	7,900	▼ 333
MS6	S.PRC-Indoneisa-PRC	-	-	8,083	7,850	▼ 233
MS7	USG-Skaw/Passero	-	-	18,633	18,633	-
T/C Average(5,8000DWT)		-	-	10,557	10,481	▼ 76

현물시장

구분	BID	OFFER	격차
Trip Cont-USG	4,250	5,000	750
Trip USG-Cont	16,000	17,300	1,300
NOPAC R.V	7,500	8,000	500
PAC R.V	9,250	9,750	500
Cont/F.EAST	13,000	14,000	1,000
F.EAST/EUROPE	4,000	5,000	1,000
S/PERIOD ATL	9,500	10,500	1,000
S/PERIOD PAC	8,750	9,500	750
1 YEAR ATL	9,250	9,750	500
1 YEAR PAC	8,750	9,250	500
2 YEARS	9,500	10,500	1,000

MEIC 핸디 용선료

항로번호	항로상세	JUN	JUL	08-AUG	13-AUG	변동
MH1	F.EAST-SE Asia	6,062	6,325	6,267	6,333	▲ 66
MH2	PG/WC India-F.EAST	6,908	7,071	6,900	6,933	▲ 33
MH3	S.PRC/SE Asia-F.EAST	6,000	6,742	6,467	6,433	▼ 34
MH4	Busan-CIS-F.EAST	-	-	6,050	6,083	▲ 33
MH5	Skaw/Passero-USG-Skaw/Passero	-	-	8,000	7,867	▼ 133
T/C Average(33,000DWT)		-	-	6,737	6,730	▼ 7

현물시장

구분	BID	OFFER	격차
Trip Cont-MED/USG	4,500	5,000	500
Trip USG-Cont-MED	12,000	13,000	1,000
NOPAC R.V	6,750	7,750	1,000
PAC R.V via SEAS	6,500	7,750	1,500
F.EAST/EUROPE	3,500	4,500	1,000
S/Period ATL/ATL	7,250	8,250	1,000
S/Period PAC/PAC	7,000	8,000	1,000
1 Year ATL	7,500	8,500	1,000
1 Year PAC	7,000	8,000	1,000
2 Years	7,750	8,750	1,000
3 Years	8,250	9,250	1,000

수프라막스 정기용선 계약

구분	VSL NAME	DWT	BUILT	DEL	REDEL	LAYCAN	DETAILS	HIRE (USD/DAY)	CHARTERER
F/HAUL	La Prrudencia	52,191	2003	EC Central America	S'pore-Japan	Mid Aug	Trip int minerals	Approx 18,000	Ashley
태평양	Seapace	56,894	2010	Huanghua	EC India	Spot	Trip via Indonesia	7,250	Emerald Maritime
	Pacific Bless	56,361	2012	Beihai	China	Spot	Trip via SE Asia int nickel ore	Approx 9,500	CNR

수프라막스 항해용선 계약

구분	VSL NAME	CARGO Q'TY	L/PORT	D/PORT	LAYCAN	FRT (USD/TON)	TERMS	CHARTERER
F/HAUL	TBN	60,000/10	Upriver+Bahia Blanca	N.China	1/10Aug	39.5	8,000satshex/10,000satshex	Cosco
태평양	Navios Titan	65,000/10	South East Kalimantan	Dahej	3/10Jul	9.3	10,000shinc/30,000shinc	Libra

핸디 정기용선 계약

구분	VSL NAME	DWT	BUILT	DEL	REDEL	LAYCAN	DETAILS	HIRE (USD/DAY)	CHARTERER
태평양	New Sailing Star	32,911	2010	S'pore	India	Ppt	Trip via West Australia	7,000	CNR

FFA 시장

FFA 거래동향

구 분	케이프						파나막스					
	BID			OFFER			BID			OFFER		
	08-AUG	13-AUG	증감	08-AUG	13-AUG	증감	08-AUG	13-AUG	증감	08-AUG	13-AUG	증감
AUG13	10,850	12,600	▲1,750	11,000	12,700	▲1,700	7,400	7,500	▲ 100	7,500	7,650	▲ 150
SEP13	13,150	15,650	▲2,500	13,300	15,750	▲2,450	8,050	8,650	▲ 600	8,150	8,750	▲ 600
Q413	16,600	18,950	▲2,350	16,750	19,050	▲2,300	8,900	9,450	▲ 550	9,000	9,550	▲ 550
Q114	10,450	12,050	▲1,600	10,600	12,150	▲1,550	7,600	7,950	▲ 350	7,700	8,000	▲ 300
Q214	12,700	14,100	▲1,400	12,900	14,200	▲1,300	8,800	9,100	▲ 300	8,950	9,250	▲ 300
CAL14	14,150	15,400	▲1,250	14,300	15,500	▲1,200	8,100	8,350	▲ 250	8,150	8,450	▲ 300
CAL15	15,200	16,000	▲ 800	15,350	16,100	▲ 750	8,600	8,800	▲ 200	8,700	8,900	▲ 200
CAL16	16,200	16,700	▲ 500	16,400	16,800	▲ 400	9,400	9,500	▲ 100	9,500	9,650	▲ 150

구 분	수프라막스						핸디					
	BID			OFFER			BID			OFFER		
	08-AUG	13-AUG	증감	08-AUG	13-AUG	증감	08-AUG	13-AUG	증감	08-AUG	13-AUG	증감
AUG13	9,250	9,400	▲ 150	9,350	9,600	▲ 250	7,400	7,400	-	7,550	7,600	▲ 50
SEP13	9,200	9,600	▲ 400	9,350	9,750	▲ 400	7,250	7,400	▲ 150	7,450	7,650	▲ 200
Q413	9,500	10,000	▲ 500	9,550	10,100	▲ 550	7,500	7,800	▲ 300	7,750	8,100	▲ 350
Q114	8,300	8,600	▲ 300	8,450	8,750	▲ 300	7,050	7,150	▲ 100	7,200	7,400	▲ 200
Q214	9,350	9,600	▲ 250	9,600	9,750	▲ 150	8,100	8,100	-	8,300	8,300	-
CAL14	9,100	9,350	▲ 250	9,200	9,450	▲ 250	7,500	7,550	▲ 50	7,600	7,700	▲ 100
CAL15	9,200	9,450	▲ 250	9,300	9,600	▲ 300	8,050	8,150	▲ 100	8,350	8,350	-
CAL16	9,400	9,500	▲ 100	9,500	9,700	▲ 200	9,150	9,150	-	9,400	9,450	▲ 50

주간 동향

▶이번 주 FFA 시장은 케이프선을 중심으로 시장 저점에 대한 인식이 크게 나타나면서 강한 매수세와 함께 전 선형이 상승세로 전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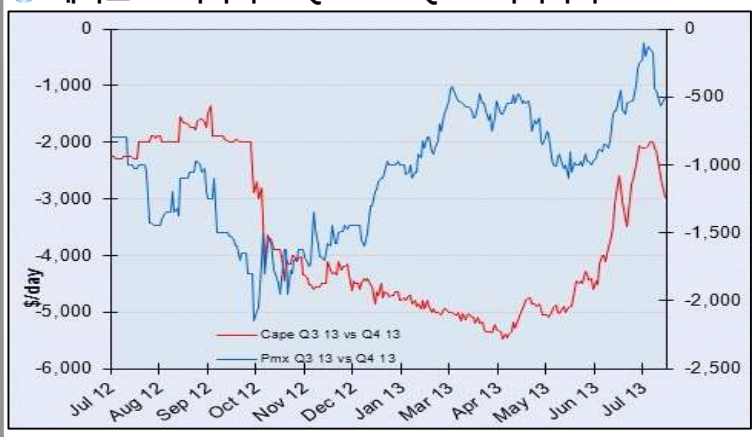
▶케이프 FFA 가격은 대부분의 물에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4분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 영향으로 SEP13과 Q413물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남

▶파나막스 FFA 가격은 상승세가 지속된 가운데 Q413물이 4분기 곡물시장의 기대감 영향으로 높은 가격대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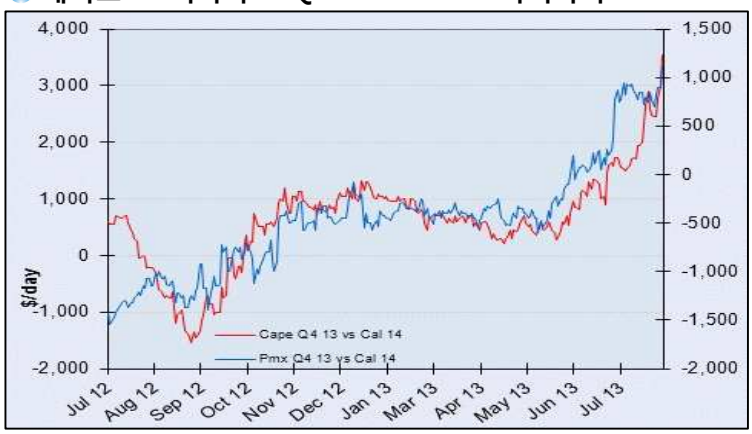
▶수프라막스 FFA 가격은 대부분의 물에서 고른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여전히 파나막스선보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함

▶핸디 FFA 가격은 대부분의 물에서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냄

케이프 & 파나막스 Q313 vs Q413 가격차이



케이프 & 파나막스 Q413 vs Cal 14 가격차이



※ 빨간선 : 케이프, 파란선 : 파나막스, 단위 : USD/DAY

원자재

➜ 철광석 시장

◎ 브라질 Vale사, 하반기 철광석 생산 확대 전망 ◎

▶ 브라질 Vale사의 상반기 철광석 생산량이 1억 3,540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2분기 생산량은 7,320만톤으로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9.1% 감소했으나, 1분기와 비교하면 8.4% 가량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상반기 철광석 생산 감소의 주요원인으로는 5월까지 브라질의 우기가 장기화되면서 Carajas광산 생산률이 현저히 하락했기 때문이며, 남부 광산의 노후화 역시 생산 감소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연산 4,000만톤의 생산능력이 가능한 Carajas광산 프로젝트가 마무리단계에 들어가면서 단계적으로 철광석 생산에 나설 것을 기대된다. 따라서 Carajas광산 가동률이 회복되면서 하반기 생산량은 상반기에 비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Vale사와는 대조적으로 호주의 Rio Tinto사는 상반기동안 1억 2,720만톤을 생산하며 전년동기 1억 2,030만톤 대비 6% 가량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철광석 판매 매출은 국제 철광석 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4% 감소한 USD118억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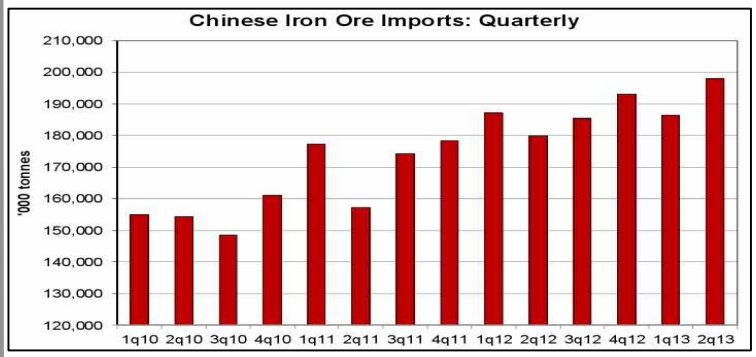
▶ 한편, 중국의 7월 철광석 수입량이 전월대비 17.4% 증가한 7,314만톤을 기록하며 Rio Tinto나 Vale사와 같은 광산업체들의 수요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로서 중국의 1~7월 누적 수입량은 4억 5,723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재 가격이 하반기 들어 반등하면서 제강사들이 매출확대를 위해 조강생산량을 늘렸고 그 결과, 철광석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철광석 수입 & 가격 동향 (단위: USD/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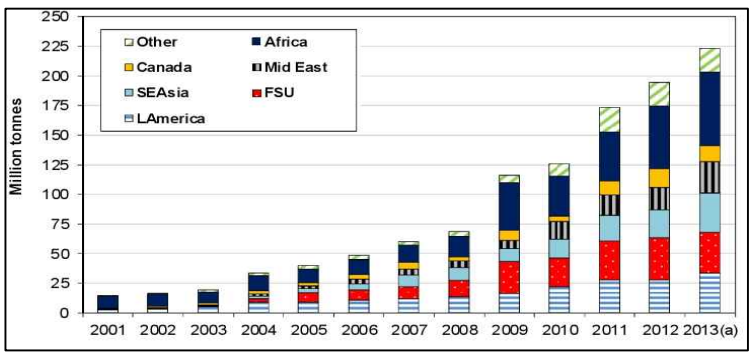
구분 (MIL MT)	수입량	주요항만 재고량	구분 USD/Day	중국 국가별 FOB 수입가격			중국 국가별 CFR 수입가격		
				인도산(63%)	호주산(61.5%)	브라질산(63%)	인도산(63%)	호주산(61.5%)	브라질산(63%)
2011	685.20	87.02	JUN	101.6	106.2	95.2	116.1	114.3	114.8
2012	745.50	92.93	JUL	113.7	118.5	105.1	128.6	126.7	126.7
증감	▲60.30	▲5.91	증감	▲12.1	▲12.3	▲9.9	▲12.5	▲12.4	▲11.9
JUN	62.30	72.63	08-AUG	121.0	125.0	112.0	135.8	134.0	134.0
JUL	73.14	72.92	13-AUG	128.0	133.0	120.0	143.3	141.5	141.5
증감	▲10.84	▲0.29	증감	▲7.0	▲8.0	▲8.0	▲7.5	▲7.5	▲7.5

TSI 철광석 가격지수										구분	평균수입가(CFR)	중국 내수가격 (66% Tangshan)
기간	BID (USD/Ton)			OFFER (USD/Ton)			MID (USD/Ton)					
	08-AUG	13-AUG	증감	08-AUG	13-AUG	증감	08-AUG	13-AUG	증감	2011	175.2	207.0
AUG13	134.00	138.00	▲4.00	135.00	139.50	▲4.50	134.50	138.75	▲4.25	2012	132.2	165.7
SEP13	132.25	138.50	▲6.25	133.25	139.00	▲5.75	132.75	138.75	▲6.00	증 감	▼43.0	▼41.3
OCT13	129.50	135.75	▲6.25	130.50	136.75	▲6.25	130.00	136.25	▲6.25	08-AUG	135.5	165.6
Q413	127.50	133.25	▲5.75	128.50	134.25	▲5.75	128.00	133.75	▲5.75	13-AUG	141.5	172.3
Q114	124.00	129.50	▲5.50	125.00	130.00	▲5.00	124.50	129.75	▲5.25	증 감	▲6.0	▲6.7
CAL14	116.00	119.50	▲3.50	117.00	120.00	▲3.00	116.50	119.75	▲3.25			

중국 분기별 철광석 수입 추이 (단위: 백만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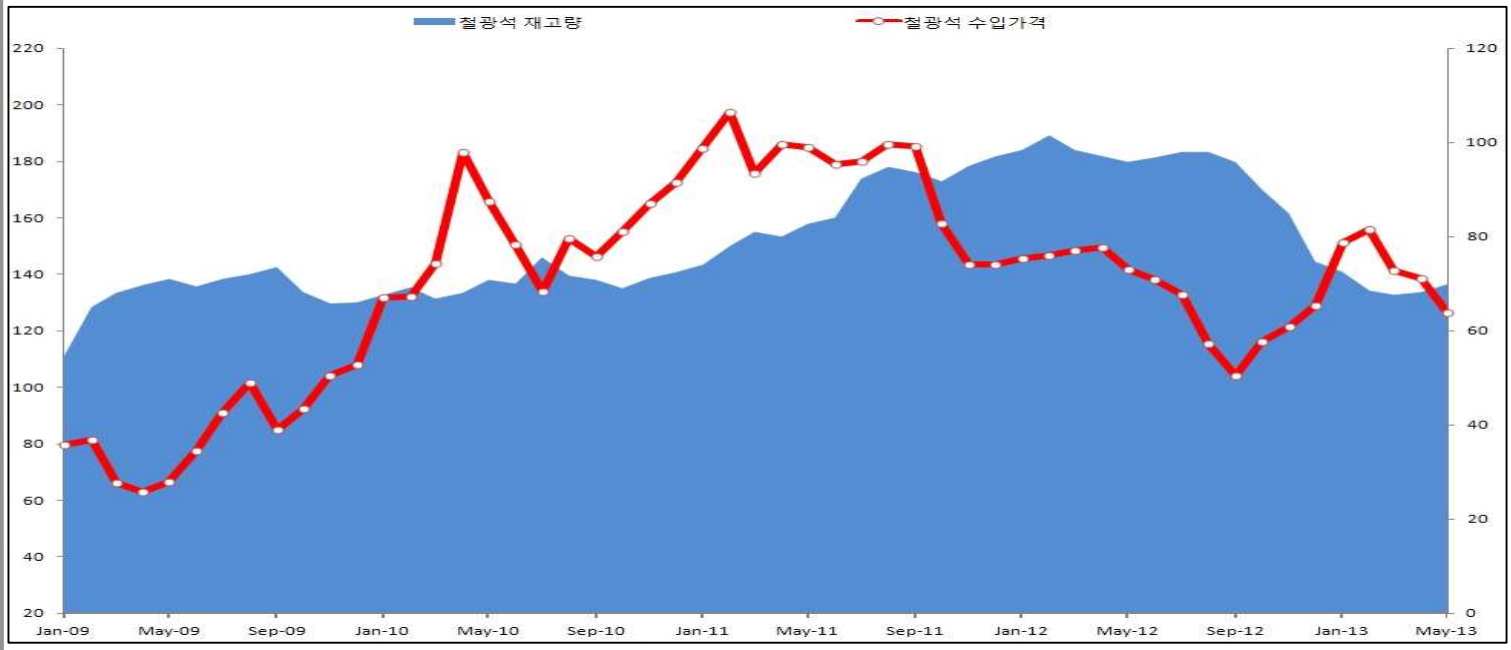
중국 지역별 철광석 수입 추이



중국 항만 철광석 재고 현황 (단위: 만톤)

항만	수입국 별 재고현황				철광석 재고량		변동
	호주	브라질	인도	기타	02-AUG	09-AUG	
Qingdao	530	180	2	598	1,330	1,310	▼20
Rizhao	446	139	22	352	995	959	▼36
Caofeidian	570	225	18	269	1,085	1,082	▼ 3
Jingtang	285	17	23	198	551	523	▼28
Lianyungang	130	75	10	85	310	300	▼10
Tianjin	396	75	25	59	645	555	▼90
Lanshan	260	28	18	127	452	433	▼19
Fangchenggang	20	30	0	97	165	147	▼18
Zhenjiang	55	35	6	144	225	240	▲15
Dalian	63	49	0	51	192	163	▼29
Yantai	27	15	0	23	75	65	▼10
Beilun	130	80	0	55	280	265	▼15
Bayuquan	80	42	0	8	110	130	▲20
Taicang	110	0	0	90	175	200	▲25
Nantong	50	35	0	66	142	151	▲ 9
Zhanjiang	18	23	0	30	65	71	▲ 6
Luojing	58	10	0	29	143	97	▼46
Nanjing	7	0	0	7	11	14	▲ 3
Jiangyin	4	0	9	35	46	48	▲ 2
Xiamen	9	0	12	31	47	52	▲ 5
Fuzhou	36	7	0	0	22	43	▲21
Zhangjiagang	16	1	0	11	17	28	▲11
Qinhuangdao	27	2	0	6	27	35	▲ 8
Quanzhou	15	0	0	11	20	26	▲ 6
Qinzhou	0	0	0	33	33	33	-
Changzhou	0	0	0	29	22	29	▲ 7
Dandong	12	0	0	4	16	16	-
Mawan	7	0	0	0	8	7	▼ 1
Longkou	0	0	0	19	19	19	-
Guangzhou	0	15	0	14	13	29	▲16
Total	3,361	1,083	145	2,514	7,241	7,103	▼138

중국 철광석 항만 재고 현황 (단위: 백만톤)



➜ 석탄 시장

◎ 남아공 석탄 광산 개발 확대 전망 ◎

▶ 남아공의 발전용 연료탄 부족으로 인해 2015년까지 적어도 USD90억 규모의 추가 광산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남아공은 정부와 광산업체간의 의견대립으로 인해 광산 투자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며, 남아공 최대 발전사인 Eskom사는 지난 2008년부터 원활한 석탄 공급을 위해 AGL, BHP Billiton등과 공급계약을 체결해오고 있다.

▶ Eskom사는 현재 Kusile과 Medupi 지역 등의 노후 발전시설의 교체를 위해 USD500억에 해당하는 투자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발전규모 기준 세계 3~4위권의 발전사로 성장할 계획이다. 따라서 Eskom사의 전력생산 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연간 6,000만톤에 해당하는 추가 연료탄이 필요한 상황이며, 적어도 5~10 가량의 광산 개발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 현재 남아공은 대부분의 에너지 생산을 화력발전을 통해 충당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현재 4만 MW 수준인 전력공급량을 88,070~124,725M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자력을 포함한 다양한 대체에너지 개발에도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40년까지 석탄을 이용한 발전량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석탄 가격 추이

연료탄 가격 (USD/TON)

현물	뉴캐슬 (FOB)	리차드베이 (FOB)	ARA (CIF)	칼리만탄 (FOB)	친황다오 (FOB)
2011	122.6	117.8	122.8	103.4	132.3
2012	96.2	92.9	92.5	80.7	117.6
증감	▼26.4	▼24.9	▼30.3	▼22.7	▼14.7
02-AUG	77.74	71.82	76.57	69.30	96.90
09-AUG	77.68	72.18	74.78	69.50	96.40
증감	▼0.06	▲0.36	▼1.79	▲0.20	▼0.50

선물	2013.08.13기준		
	뉴캐슬	리차드베이	로테르담
AUG-13	78.45	73.00	75.40
SEP-13	79.15	74.65	75.40
OCT-13	79.80	75.50	76.25
NOV-13	80.20	76.30	77.15
DEC-13	80.65	77.10	77.95
JAN-14	85.45	78.30	8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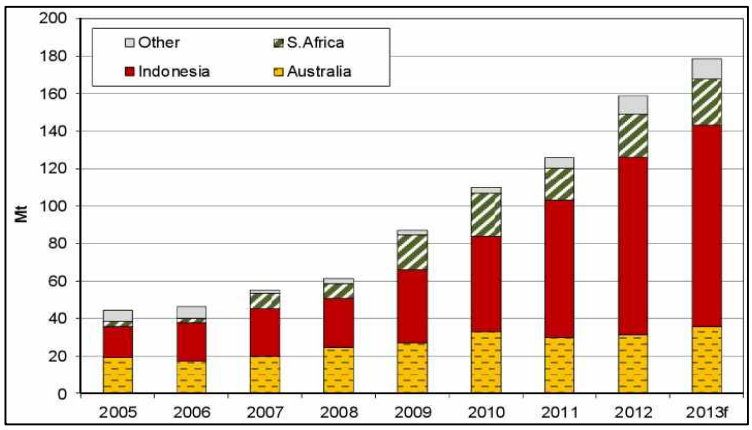
원료탄 가격 (USD/TON)

현물	중국 (FOB 미국산)	중국 (FOB Prime 인도네시아산)	중국 (FOB 호주산)	중국 (FOB 러시아산)
2011	160.07	222.95	228.32	272.55
2012	140.62	206.39	185.57	217.36
증감	▼19.45	▼16.56	▼42.75	▼55.19
08-AUG	150.00	179.60	145.00	156.80
13-AUG	150.00	179.60	145.00	156.80
증감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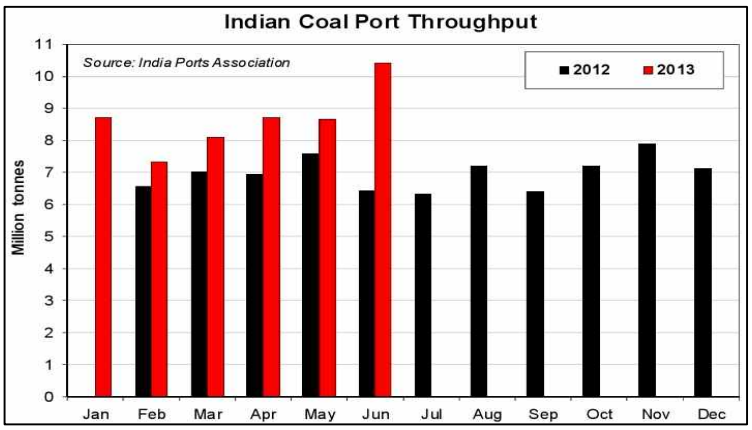
석탄 주요항만 재고 현황

단위 : 10,000톤	중국(수입국)						호주(수출국)
	Qinhuangdao	Caofeidian	Guangzhou	Jingtang	Bohai-rim Region	합계	Newcastle
JUN-13	670.10	258.64	169.68	169.68	1,884.24	2,775.76	138.04
JUL-13	704.00	562.50	298.83	204.28	2,086.40	3,856.01	84.14
증감	▲33.90	▲303.86	▲129.15	▲34.60	▲202.16	▲1,080.25	▼53.90
02-AUG	726.50	527.00	300.90	202.67	1,978.5	3,735.57	142.60
09-AUG	730.50	552.00	292.00	205.84	2,014.4	3,794.74	126.30
증감	▲4.00	▲25.00	▼8.90	▲3.17	▲35.9	▲59.17	▼16.30

인도 석탄 국가별 수입 추이 (단위: 백만톤)



인도 석탄 항만 처리량 추이 (단위: 백만톤)



➜ 곡물 시장

◎ 국제 옥수수 생산량 확대 전망 ◎

▶ 국제 곡물협회(IGC)는 2013~14시즌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이 전월 예상치 보다 360만톤 가량 감소한 9억 4,240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미국에 발생한 최악의 가뭄영향으로 생산부진을 겪으면서 8억 5,910만톤의 생산량에 그쳤던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9%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옥수수 가격의 경우 생산증대 영향으로 이번 시즌 가격이 전년동기대비 32% 가까이 하락하는 등 지난 50년내 최대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7월 들어 중국과 우크라이나 등의 생산 증대소식으로 가격 하락세가 크게 나타나면서 S&P GSCI 원자재 지수 값이 역대 2번째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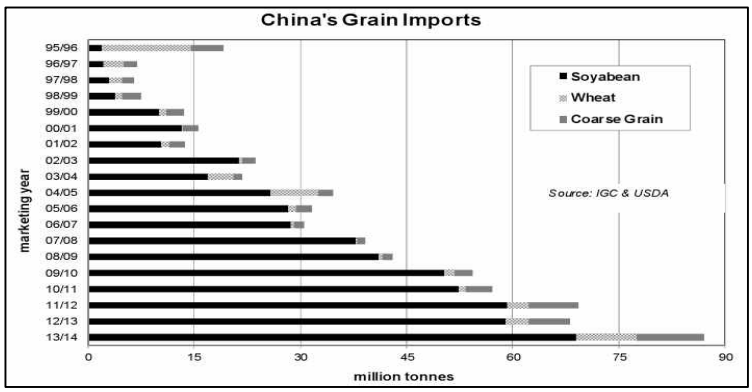
▶ IGC는 이번 시즌 옥수수 생산 증대 영향으로 연말 재고량 역시 증가하면서 전년도 1억 2,000만 톤 보다 20% 가까이 증가한 1억 4,800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별 생산 전망치는 미국이 전년도 2억 7,380만 톤 보다 22% 가까이 증가한 3억 5,000만톤을 생산할 전망이며, 우크라이나가 지난 시즌 2,090만톤 대비 300만톤 증가한 2,400만톤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했다.

곡물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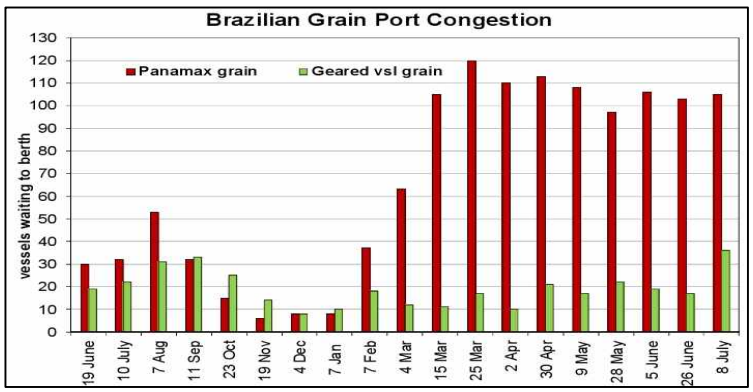
곡물 현물 가격(시카고 거래기준)				미국 곡물 수출량 동향(,000톤)				
US ¢/bu	대두	밀	옥수수	구 분	대두	밀	옥수수	합 계
08-AUG	1,350.8	626.3	543.5	JUN-13	560.4	2,162.7	1,059.8	3,782.9
13-AUG	1,354.8	613.3	525.3	JUL-13	358.4	2,635.9	1,241.1	4,235.4
증감	▲4.0	▼13.0	▼18.2	증감	▼202.0	▲473.2	▲181.3	▲452.5

곡물 선물 가격										
	대두			밀			옥수수			
DATE	시카고 상품거래소 US ¢/bu 2013.11월물	시카고 상품거래소 US ¢/bu 2014.1월물	브라질 선물시장 US ¢/bu 2013.8월물	시카고 상품거래소 US ¢/bu 2013.9월물	시카고 상품거래소 US ¢/bu 2013.12월물	런던 선물거래소 US ¢/bu 2013.11월물	시카고 상품거래소 US ¢/bu 2013.12월물	시카고 상품거래소 US ¢/bu 2013.3월물	브라질 선물시장 US ¢/bu 2013.9월물	런던 선물거래소 US ¢/bu 2013.11월물
08-AUG	1,184.3	1,189.3	1,243.8	641.3	653.8	619.4	459.8	473.3	447.5	567.6
13-AUG	1,227.8	1,232.5	1,292.8	628.3	641.5	609.3	447.3	460.8	435.8	557.6
증감	▲43.5	▲43.2	▲49.0	▼13.0	▼12.3	▼10.1	▼12.5	▼12.5	▼11.7	▼10.0

남아메리카 분기별 곡물 수출 추이 (단위 : 천톤)



중국 대두 수입량 (단위 : 백만톤)



선박 연료유

◎ 선박연료유가 약상승세, 원유선물가 상승세 ◎

- 지난 주말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중국의 원유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과 리비아의 원유 공급 감소에 따라 반전하여 급등세를 보이더니 금주 초에 들면서 중동 산유국 수출 차질과 북해산 일부 원유의 생산 감소 등에 따라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 Platts에 따르면 국제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들에게만 판매되는 일본 보세 선박연료유 판매가 5월에 비해 1.4%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0.9% 상승한 3억2천8백4십만7천리터, 보세 해양디젤유는 전년동기대비 9.4% 증가한 6백3십7만리터로 집계되었다.
- 지난주에 앞선 주의 가격을 유지하거나 USD5 내외의 등락을 보이며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던 선박연료유가는 금주에 들어서면서 IFO380과 MDO 모두 항만별로 등락을 보이며 대체로 혼조세 및 약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원유선물가는 일제히 반등했다.

선박연료유 가격 동향

	IFO380(USD/톤)							MDO(USD/톤)						
DATE	부산	로테르담	싱가포르	휴스턴	도쿄	홍콩	지브랄타	부산	로테르담	싱가포르	휴스턴	도쿄	홍콩	지브랄타
2012	699.0	636.3	663.4	649.8	702.0	687.9	657.9	981.3	936.3	942.6	1,002.1	965.2	1,079.0	978.2
08-AUG	624.5	597.0	601.0	580.5	635.5	615.5	621.5	949.5	890.0	913.5	981.0	939.5	930.0	964.5
14-AUG	623.0	596.5	602.5	595.0	634.5	619.5	616.5	943.0	872.5	919.5	991.5	939.5	931.0	951.5
증감	▼1.5	▼0.5	▲1.5	▲14.5	▲1.5	▲4.0	▲5.0	▼6.5	▼17.5	▲6.0	▲9.5	-	▲1.0	▼13.0

- IFO380은 부산과 로테르담이 USD0.5~1.5 내린 반면, 나머지 항만들은 USD1.5~USD14.5 올랐음
- MDO는 부산, 로테르담, 지브랄타가 USD6.5~USD17.5 내렸고, 도쿄는 그대로 유지했으며, 나머지 항만들은 USD1~USD9.5의 상승을 보였음
- 부산은 IFO380이 지난주 하락세를 이어가며 USD1.5 내린 USD623, MDO도 하락세를 이어가며 USD6.5 내려 USD943을 기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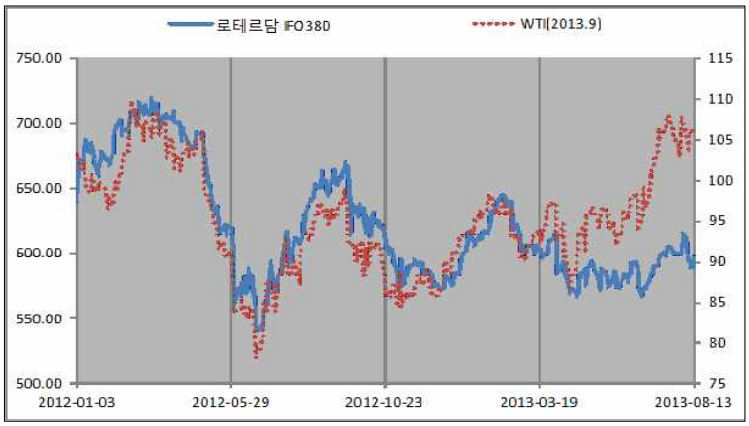
원유 선물가격 동향

USD/BBL	WTI		브렌트		두바이
DATE	2013.09월	2013.10월	2013.09월	2013.10월	2013.08월
08-AUG	103.40	102.87	106.68	105.36	103.59
14-AUG	106.83	106.40	109.87	108.48	105.71
증감	▲3.43	▲3.53	▲3.19	▲3.12	▲2.12

주간동향

-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가격은 지난주 하락세가 다시 반전되면서 2013년 9월물이 USD3.43 올라 US106.83, 10월물도 USD3.53 오르면서 USD106.40을 기록하였음
- ▶브렌트유 선물가격 역시 하락세가 다시 반등하면서 2013년 9월물이 USD3.19 오른 USD109.87, 10월물도 USD3.12 오르면서 USD104.48을 기록하였음
- ▶두바이유도 지난주의 하락세가 다시 반등하면서 2013년 9월물이 USD2.12 오른 USD105.71을 기록하였음

IFO380 VS WTI 선물가격



IFO380 VS MDO

항만 동향

◎ 호주 뉴캐슬항 석탄 수출량 증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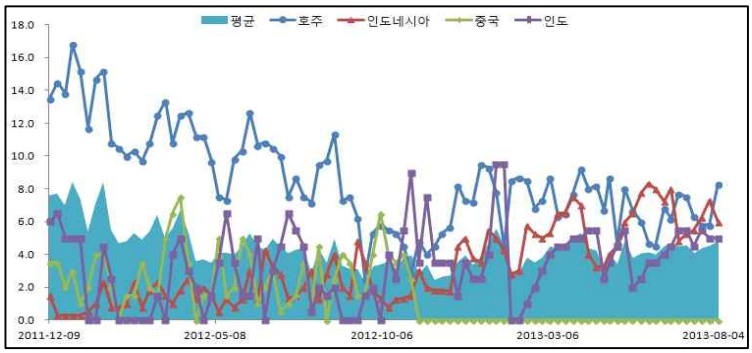
- 이번 주 항만체선 동향 자료는 레포트 발간 시기 변경으로 인해, 최신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호주 뉴캐슬항의 2012-13시즌 석탄 수출량이 전년도 1억 2,190만톤대비 17% 증가한 1억 4,260만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캐슬항을 통해 판매되는 석탄의 평균가격은 F.O.B 기준 USD96.94 이었으며, 총 수출판매 금액은 USD138억을 기록했다.
- 또한 주요 수출국으로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 대만이 전체 수출비중의 94%를 차지할 정도로 극동지역 국가들의 수출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한편, 지난 1년간 뉴캐슬항을 입출항한 선박척수는 4,631척으로 집계되었으며, 주요 터미널 운영사 가운데 PWCS사의 연간 처리량이 1억 660만톤이었으며, NCIG사가 3,600만톤 가량의 석탄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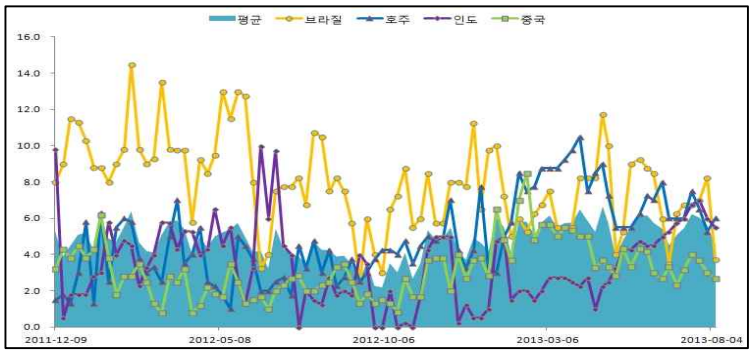
석탄 체선 동향(DAY)								철광석 체선 동향(DAY)								
구분	선적항					양하항		선적항						양하항		
	호주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호주		인도		중국		
DATE	Dalrymple bay	New-Castle	Port Kembla	Taboneo	Adang Bay	Xin-gang	Vizag	Guaiba Island	Tubarao	Dampier	Port Hedland	Mormu goa	Vizag	Qingdao	Xin-gang	Baoshan
31-JUL	15.0	2.0	0.5	10.0	4.5	0.0	5.0	9.0	7.5	4.5	6.0	5.5	6.5	4.0	1.5	3.5
08-AUG	15.0	6.5	3.5	9.0	3.0	0.0	5.0	4.0	3.5	6.0	6.0	6.0	5.0	2.0	1.0	5.0
증 감	-	▲4.5	▲3.0	▼1.0	▼1.5	-	-	▼5.0	▼4.0	▲1.5	-	▲0.5	▼1.5	▼2.0	▼0.5	▲1.5

케이프 대기척수					국가별 평균 선박 대기일수						
구분	전 세계	브라질	호주	중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남아공	평균
JUN	182	28	94	46	4.0	2.2	2.9	4.1	5.4	2.6	3.5
31-JUL	137	13	71	41	4.3	1.7	2.6	4.3	5.1	3.0	3.5
08-AUG	160	11	87	51	4.6	2.2	2.6	3.5	3.1	0.5	2.8
증 감	▲23.0	▼2.0	▲16.0	▲10.0	▲0.2	▲0.5	-	▼0.8	▼2.0	▼2.5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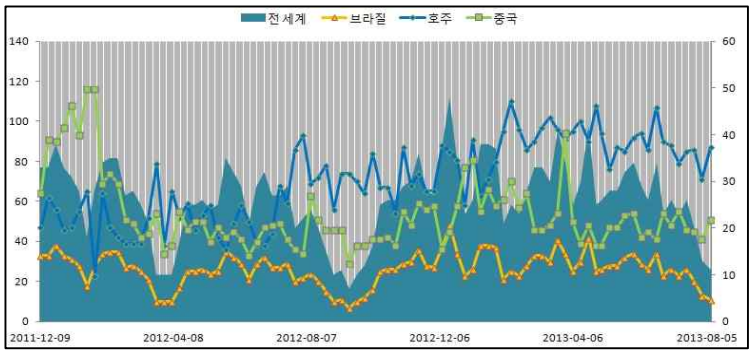
주요 국가 석탄 항만 체선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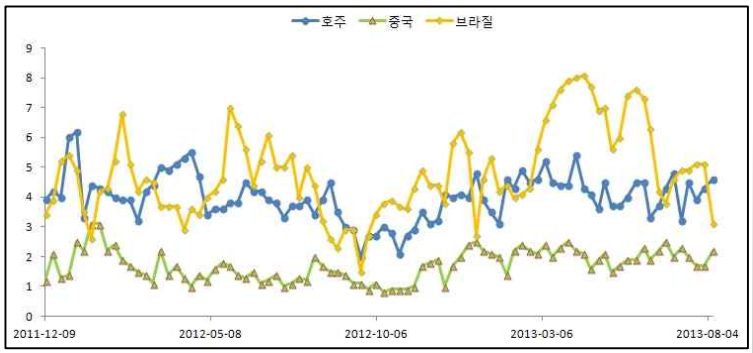
주요 국가 철광석 항만 체선일수



케이프 대기척수



국가별 선박 대기일수



선박매매 동향

◎ 신조 잠잠, 중고 활기, 해체 침체 ◎

- **[신조]** 지난해 동기 대비 신조발주량의 급증에 따라 선복과잉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일각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선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세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금을 확보하여 선대 확충에 나서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 **[중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지나가면서 중고시장 거래 장세는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주에는 수프라막스 이하 소형선형을 위주로 활발히 성약이 보고되었으나 매매가격은 통상적인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해체]** 인도의 환율과 철재가격은 금주에도 요동을 치며 혼조세를 보이며 불안한 장세를 형성한 가운데, 연 이은 종교축제로 야드의 활동도 현금 매입업자나 해체업자의 매입의지도 약화된 상황에서 장기간의 관망세가 지속되며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

신조선

MEIC 신조선 가격 (USD백만)					
선형		01-AUG	08-AUG	13-AUG	증감
케이프	180K	47.0	47.0	47.1	▲0.1
파나막스	74K	26.1	26.1	26.1	-
	82K	27.1	27.5	27.5	-
	92K	28.4	28.5	28.5	-
수프라막스	58K	24.9	24.9	24.9	-
	64K	25.9	25.8	25.8	-
핸디	33K	21.6	21.6	21.6	-

주간동향

▶케이프는 지난주보다 USD10만 오른 USD4,710만을 기록하였음

▶파나막스는 74K 는 3주째 지난주 선가인 USD2,610만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82K와 92K 역시 지난주 선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각USD2,750만과 USD2,850만을 이어가고 있음

▶수프라막의 경우에도 58K와 64K 모두 지난주 선가인 USD2,490만과 USD2,580만을 각각 유지하였음

▶핸디사이즈 역시 계속해서 선가 USD2,160만을 유지하고 있음

중고선

MEIC 중고선 가격 (USD백만)							
일자	선형(DWT)	리세일		선령 5년		선령 10년	
08-AUG	케이프(180,000)	42.3	▼0.1	33.1	-	21.0	-
	파나막스(74,000)	28.3	-	21.2	▼0.2	15.3	▼0.1
	수프라막스(58,000)	26.5	-	21.0	-	15.3	▲0.1
	핸디(33,000)	21.7	-	17.4	-	12.7	-
13-AUG	케이프(180,000)	42.5	▲0.2	33.1	-	20.9	▼0.1
	파나막스(74,000)	28.4	▲0.1	21.1	▼0.1	15.2	▼0.1
	수프라막스(58,000)	26.5	-	20.9	▼0.1	15.3	-
	핸디(33,000)	21.8	▲0.1	17.4	-	12.7	-

주간동향

▶케이프는 리세일이 USD20만 반등하며 USD4,250만을 기록하였고, 선령 5년은 지난주 선가 USD3,310만을 유지하였으며, 선령 10년은 USD10만 떨어져서 USD2,090만을 기록하였음

▶파나막스는 리세일이 USD10만 오르면서 USD2,840만을 기록한 반면, 선령 5년과 10년은 USD10만 내려가 각각 USD2,110만과 USD1,520만을 기록하였음

▶수프라막스는 리세일과 선령 10년이 지난주 선가 USD2,650만과 USD1,530만을 유지하였으나 선령 5년은 USD10만 떨어지면서 USD2,090만을 기록하였음

▶핸디는 리세일이 USD2,180만으로 USD10만 올랐으나, 선령 5년과 10년은 선가 USD1,740만과 USD1,1270만을 유지하였음

선박해체

건화물선 해체가격 (USD/LDT)				
일자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중국
18-JUL	385	385	385	315
25-JUL	385	385	385	315
01-AUG	385	380	385	320
08-AUG	380	380	380	320
13-AUG	380	380	380	330
증감	-	-	-	▲10

주간동향

▶방글라데시는 해체업자의 종교축제에 따른 휴무와 여름휴가로 매입업자들 또한 잠잠한 하운데 시장은 보합세를 유지해가고 있음

▶인도는 금주에도 환율과 철재가격이 요동치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입업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역시 조용한 장세를 이어감

▶파키스탄도 라마단에 이은 Eid 연휴로 조용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인도 장세의 영향을 받아 단기간의 회복은 어려워 보임

▶중국은 유입물량 품귀로 가격이 급등세를 보였고 나머지 3국의 가격 경쟁에 밀린 해체업자들이 물량확보에 나서면서 약반등세를 보임

신조선

◎ 조용한 장세 이어가는 신조시장 ◎

-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선복과잉 상황에 대해 Clarkson Research Services의 대표 Martin Stopford는 현재 글로벌 벌크선 선대가 수요 대비 약 30%가 공급과잉으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선대 증가율이 85%에 달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 선복과잉 상황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선가가 이미 바닥을 치고 반등을 시작했다는 정서가 확산되면서 독일의 선사인 E.R.Schiffahrt사는 E.R.Capital Holding사와 Schulte Group이 JV사를 설립하고 선박투자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 Marine Management사가 Jiangsu New YJZ 조선소에 82,000DWT급 2척을 2016년 인도예정으로 척당 USD2,650만에, Canadian Forest Naviation사는 64,000DWT급 2척을 중국 Zhoushan Zengzhou 조선소에 2014년 인도예정으로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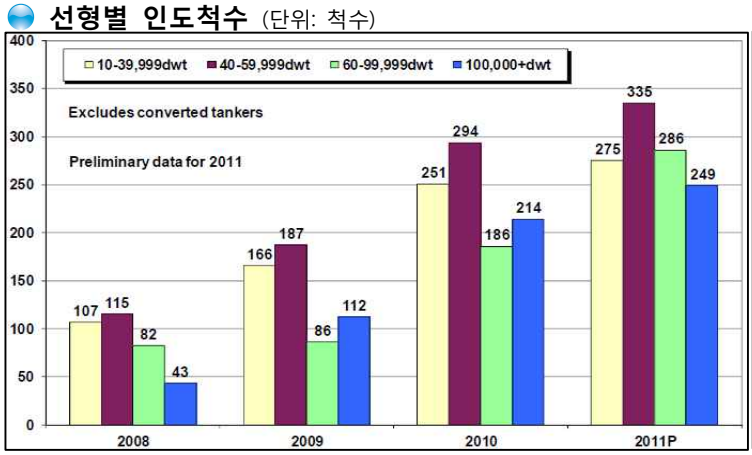
건화물선 발주잔량 (2013.07)

연도	케이프		파나막스		수프라막스		핸디		합 계		
	NO	DWT백만	NO	DWT백만	NO	DWT백만	NO	DWT백만	NO	DWT백만	비율(%)
2013	81	16.1	204	16.3	167	9.3	138	4.6	590	46.3	41.5
2014	88	26.6	168	13.6	149	8.7	158	5.3	563	45.3	40.5
2015+	46	8.5	47	3.9	76	4.5	88	3.1	257	20.1	18.0
합계	215	42.3	419	33.8	392	22.5	384	13.1	1,410	111.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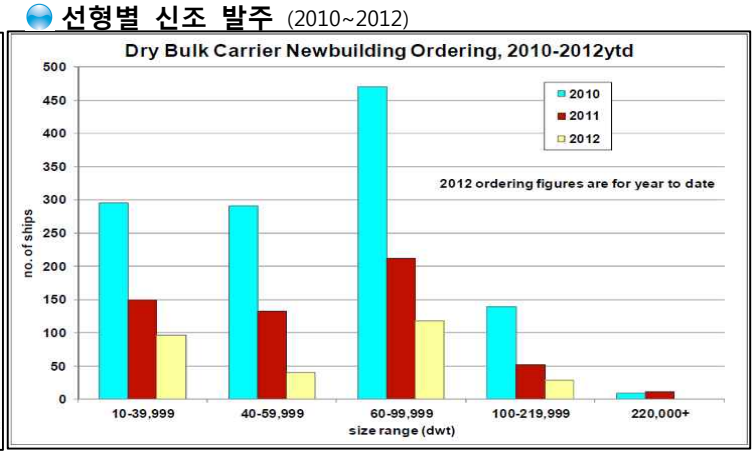
계약현황

월	선형	DWT	인도예정	YARD	BUYER	척수	가격 (USD백만)
8월 2주차	Bulker	39,000	2015	Kouan Shipbuilding/China	Nanjing King Ship	1	-
	Bulker	39,000	2015	Kouan Shipbuilding/China	Nanjing King Ship	1	-
	Bulker	25,000	2014	Guangzhou Shipyard International/China	Henghou	1	-
	Bulker	25,000	2014	Guangzhou Shipyard International/China	Henghou	1	-
8월 3주차	Bulker	82,000	2016	Jiangsu New Yangzijiang/China	Marine Management	1	26.50
	Bulker	82,000	2016	Jiangsu New Yangzijiang/China	Marine Management	1	26.50
	Bulker	64,000	2014	Zhoushan Zengzhou/China	Canadian Forest Navigation	1	-
	Bulker	64,000	2014	Zhoushan Zengzhou/China	Canadian Forest Navigation	1	-

선형별 인도척수 (단위: 척수)



선형별 신조 발주 (2010~2012)



중고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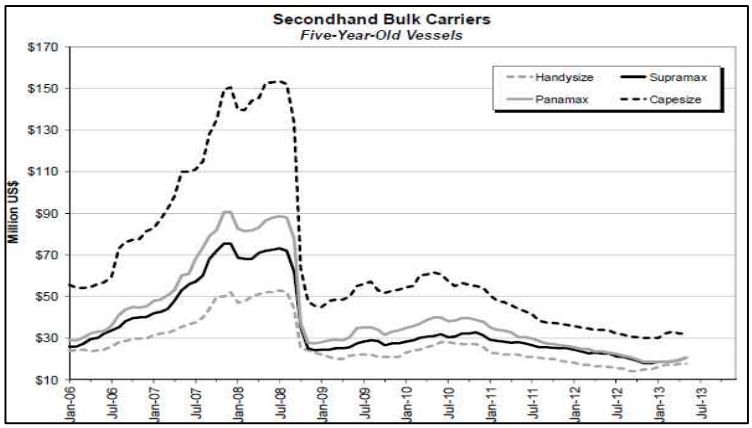
◎ 소형선박 위주의 활발한 중고선 거래 ◎

- 발틱운임지수가 요동치면서 겨우 1,000을 회복한 상황이지만 매입자들은 시황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갖고 신조발주와 중고선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조용한 지난주와 달리 금주에는 전 선형에 걸쳐 12척의 매매성약이 보고되었다.
- 금주에는 파나막스 1척 외에 나머지가 수프라막스 이하의 선형이 거래되었는데, MIMOSA(53,556DWT/2007/Iwagi)의 경우 확정은 아니나 그리스 선주에게 USD1,800만에 매각협상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평가되고 있다.
- 특히 소형선박의 일괄매매가 눈에 띄었는데, 중국 Sainty 조선소에서 건조된 6,800DWT급 6척의 자매선박을 알려지지 않은 선주가 척당 USD490만에 매입, 또 한편에서는 4,500DWT급 3척이 독일인 선주에게 척당 USD398만에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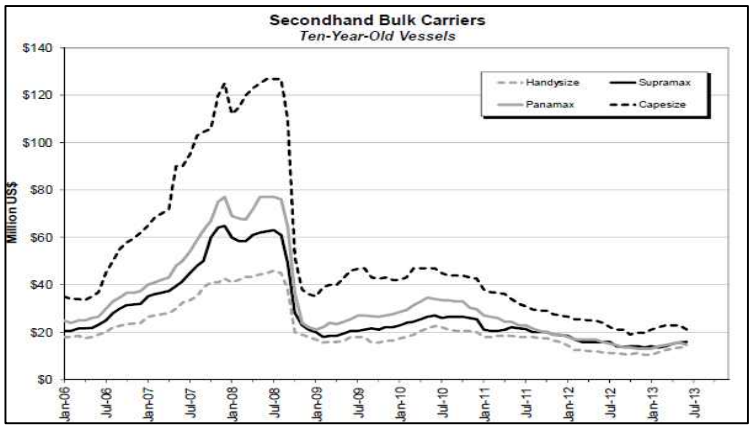
계약현황

월	선형	선박명칭	DWT	건조년도	YARD	BUYER	가격 (USD백만)
8월 2주차	Bulker	CAPE LOTUS	170,780	2000	IHI Marine United/Japan	Berge Bulk	16.00
	Bulker	YUSHO REGULUS	76,598	2006	Imabari Shipbuilding/Japan	Chronos	18.25
	Bulker	TOKIWA GLORY	55,742	2006	Mitsui Engineering & Shipbuilding/Japan	Greek	19.00
	Bulker	AZUMA PHOENIX	43,596	1994	Tsuneishi Shipbuilding/Japan	-	6.10
	Bulker	MAPLE CRYSTAL	32,394	2012	Taizhou Maple Leaf Shipbuilding/China	Norsul Shipping	18.40
	Bulker	POS LEADER	31,907	2006	Hakodate Dock/Japan	Pacific Basin	16.00
	Bulker	POS KNIGHT	31,895	2006	Hakodate Dock/Japan		16.00
	Bulker	POS JADE	31,886	2006	Hakodate Dock/Japan		16.00
	Bulker	UBC BREMEN	24,072	1998	Saiki Heavy Industries/Japan	Tufton Oceanic	6.90
	Bulker	UBC BATON ROUGE	24,034	1998	Saiki Heavy Industries/Japan		6.90
	Bulker	UBC BOSTON	23,543	1997	Saiki Heavy Industries/Japan		6.20
	Bulker	NAXOS	23,825	1995	Naikai Zosen Corp/Japan	Greek	5.30
8월 3주차	Bulker	DANANN ISLAND	75,637	2006	Sanoyas Shipbuilding/Japan	Greek	18.50
	Bulker	MIMOSA	53,556	2007	Iwagi Zosen/Japan	Greek	18.00
	Bulker	SPRING PROGRESS	50,344	2003	Kawasaki Heavy Industries/Japan	-	15.00
	Bulker	SOUTHERN FIGHTER	29,478	1998	Shin Kurushima Dockyard/Japan	Turkish	7.80
	Bulker	ORIENTE PRIME	21,955	1994	Saiki Heavy Industries/Japan	Chinese	4.50
	Bulker	MEDONEGA	6,804	2008	Sainty Shipbuilding (Yangzhou)/China	-	4.90
	Bulker	MEDCASPIAN	6,801	2009	Sainty Shipbuilding (Yangzhou)/China		4.90
	Bulker	MADALDAN	6,797	2009	Sainty Shipbuilding (Yangzhou)/China		4.90
	Bulker	MEDARCTIC	6,796	2009	Sainty Shipbuilding (Yangzhou)/China		4.90
	Bulker	HAELSINGLAND	6,795	2008	Sainty Shipbuilding (Yangzhou)/China		4.90
	Bulker	KURLAND	6,777	2009	Sainty Shipbuilding (Yangzhou)/China		4.90
	Bulker	SKARPOE	4,508	2005	Severnav S.A., Societatea Comerciala/Romania	German	3.98
	Bulker	STOROE	4,507	2004	Severnav S.A., Societatea Comerciala/Romania		3.98
	Bulker	VARMDO	4,501	2004	Bodewes' Scheepswerven B.V./Netherlands		3.98
	Bulker	UAL TYCOON	2,310	2008	Piasau Slipways Sdn Bhd/Malaysia	-	4.70

건화물선 가격 추이 (선령5년)



건화물선 가격 추이 (선령 10년)



선박해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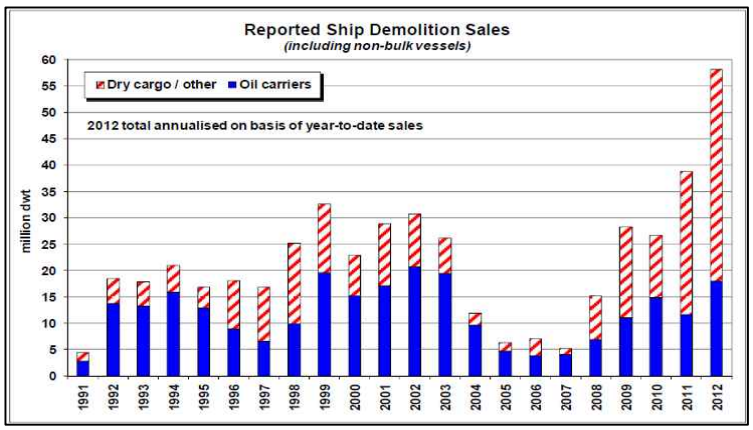
◎ 지속되는 해체시장 침체 장기화 ◎

- 지난주에 이어 해체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종교축제가 이어진 최근 수준간의 여파가 그대로 야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적정선의 가격을 회복하기 위해 해체선 매각에도 매입에도 망설이면서 관망세를 유지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클락슨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의 전체 해체규모는 28,800,000만DWT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벌크선 해체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8%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어 해체시장의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
- 금주에는 HENG YU(123,665DWT/1992/Aesa)가 중국인 매입자에 USD325/LDT에 매각, GETWIN(65,862DWT/1982/Mitsubishi)과 KIRAN ATALANTIC(38,237DWT/1985/Solisnor)이 방글라데시 업자에 USD412/LDT와 USD412/LDT에 매각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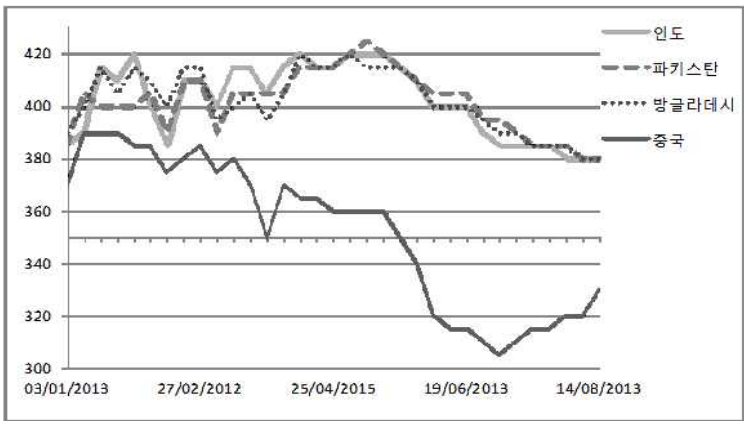
계약현황

선형		선박명칭	DWT	건조년도	YARD	LDT	BUYER	가격 (USD/LDT)
8월 2주차	Bulker	VASOS	152,065	1990	Mitsui Engineering & Shipbuilding/Japan	18,812	Bangladeshi	407
	Bulker	GREEN FOREST	43,117	1988	Oshima Shipbuilding/Japan	8,487	Indian	407
8월 3주차	Bulker	HENG YU	123,665	1992	Aesa - Astilleros Espanoles Sa/Spain	26,376	China	325
	Bulker	GETWIN	65,862	1982	Mitsubishi Heavy Industries/Japan	11,278	Bangladesh	412
	Bulker	KIRAN ATLANTIC	38,237	1985	Solisnor - Estaleiros Navais Sa/Portugal	8,737	Bangladesh	395

연도별 선박해체 추이 (단위: DWT백만)



스크랩 가격 추이 (단위: USD/LDT)



세계 건화물선

건조연도별 선대현황 (2013. 6)

	10-39,999		40-64,999		65-99,999		100,000+		220,000+		TOTAL		
BUILT	NO.	DWT백만	NO.	DWT백만	NO.	DWT백만	NO.	DWT백만	NO.	DWT백만	NO.	DWT백만	% DWT
Pre-1989	630	17.1	226	10.7	60	4.3	15	2.5	7	2.0	938	36.6	5.3%
1989~93	121	3.2	104	4.9	115	8.3	72	11.4	42	11.3	454	39.1	5.6%
1994~98	363	9.3	361	16.6	298	21.6	146	23.6	24	6.8	1,192	78.0	11.2%
1999~03	274	7.5	343	17.2	320	24.2	135	23.1	3	0.7	1,075	72.6	10.5%
2004~08	360	9.9	485	26.2	434	34.2	234	42.3	12	3.2	1,525	115.8	16.7%
2009~13	1,102	34.6	1,334	75.4	979	81.4	748	129.2	104	31.9	4,267	352.5	50.7%
Total	2,850	81.6	2,853	151.0	2,206	174.0	1,350	232.1	192	55.9	9,451	694.6	100.0%

건화물 선대 증가현황 (2013. 1~2013. 6)

	핸디		수프라막스		파나막스		케이프		합계	
	NO.	DWT백만	NO.	DWT백만	NO.	DWT백만	NO.	DWT백만	NO.	DWT백만
신조선인도(A)	102	3.37	132	7.49	133	10.88	61	13.34	428	35.08
선박개조(B)	0	0	0	0	0	0	0	0	0	0
선박해체(C)	113	3.35	39	1.71	42	2.88	29	5.00	223	12.94
순증가량(A+B)-C	-11	0.02	93	5.78	91	8.00	32	8.34	205	22.14
전체선대(2013.06)	2,850	81.6	2,853	151.0	2,206	174.0	1,542	288.0	9,451	694.6
선복증가량(12.1월대비)	▼40.0	▼0.7	▲40.0	▲2.6	▲76.0	▲6.3	▲25.0	▲6.0	▲101.0	▲14.2

건화물 수요 추이

건화물 수요		백만톤					증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1/12
Iron Ore Trade							
Import	Japan	140.4	105.4	134.3	127.7	130.2	▲ 1.9%
	S.Korea	49.5	42.1	56.3	64.7	66.0	▲ 2.0%
	China	444.0	629.8	618.6	678.1	743.6	▲ 9.7%
Total Imports(listed)		894.1	931.8	1,041.2	1,098.7	1,151.9	▲ 4.8%
Exports:	Australia	324.8	381.1	422.6	437.7	518.1	▲ 18.4%
Coal Trade							
Imports:	Japan	191.7	161.8	184.5	174.7	184.2	▲ 5.4%
	S.Korea	99.7	103.0	118.6	128.4	124.6	▼ 2.9%
	EU	200.5	195.7	176.4	200.9	215.5	▲ 7.3%
Total Imports (listed)		827.7	846.0	955.2	1,006.7	1,097.9	▲ 9.1%
Exports:	Australia	261.3	274.6	301.0	270.1	316.1	▲17.0%
	USA	52.9	44.5	63.4	90.4	107.1	▲18.5%
	Canada	30.8	26.8	31.2	31.7	33.3	▲ 5.0%
	South Africa	63.2	62.6	68.8	64.3	76.9	▲19.6%
Total Exports (listed)		827.7	846.0	955.2	1,006.7	1,097.9	▲ 9.1%
Grain Trade							
Exports:	USA	77.7	79.2	87.6	73.1	62.4	▼14.6%
	Canada	22.2	21.4	21.3	19.9	23.6	▲18.6%
	Australia	18.4	18.0	23.2	22.6	25.3	▲11.9%
	Argentina	22.3	20.0	26.1	28.1	31.7	▲ 7.7%
	EU	30.0	23.6	28.2	20.4	22.5	▲12.8%
Total Exports (listed)		249.5	239.9	243.4	250.2	254.4	▲ 1.7%
Bauxite/Alumina		94	72	84	97	109	▲12.4%
Phosphate Rock		31	20	23	26	27	▲ 3.8%
5 Major Bulks		2,096.3	2,109.7	2,346.8	2,478.6	2,640.2	▲ 6.5%
Others		1,134.0	1,035.0	1,156.0	1,346.0	1,401.0	▲ 4.1%
Total Dry Bulk		3,230.3	3,144.7	3,502.8	3,824.6	4,041.2	▲ 5.7%

세계경제

독일 "내년초 그리스에 추가 구제금융"

- 12일 독일 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최근 내부 보고서를 통해 내년초에 그리스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알려짐
- 관련하여 독일 정부는 본 보고서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그리스가 내년 초 추가 구제금융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부인함

유럽 은행 자산 4750조원 줄여야

- 11일 외신은 바젤III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유럽 대형은행들이 향후 5년간 6,610억유로(약 980조원)의 자산매각 및 470억유로(약 70조원)의 자본보강이 필요하며 특히 중소은행의 채무가 심각해 2조6천억유로(약 3,859조원)의 자산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함

헝가리 구제금융 빚 조기상환

- 12일 헝가리 정부는 성명을 통해 IMF 구제금융 자금 중 나머지 21억5000만유로(약 3조2000억원)를 모두 상환해 지난 2008년 IMF로부터 빚진 돈을 모두 갚았다고 밝힘
- 당초 헝가리의 상환 기한은 내년 3분기로 헝가리 정부는 올해 약 18억 유로를, 내년 1분기에 3억 유로를 차례로 상환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기상환을 통해 35억 포린트(약 175억원)의 이자 비용 또한 절감한 것으로 나타남

미국 9월 양적완화 축소 전망

- 13일 블룸버그는 전문가 조사결과에 따라 연준이 9월에 양적완화를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함
- 48명의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한 금번 조사는 65%의 응답이 연준이 9월에 출구전략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지난달 결과치인 50%는 크게 웃돌았음

브라질 경제부진에도 석유생산 증가

- 포브스는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가 발표한 올해 2·4분기 실적을 인용해 정제 유류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6.5% 늘었다고 보도함. 페트로브라스는 2분기 순이익 62억헤알(약 3조460억원)로 지난해 동기 13억5000만헤알의 손실 대비 흑자 전환함
-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은 추락세를 거듭해 왔으며 올해도 브라질 정부 전망치 올해 2.24%, 내년 2.6%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유류 소비는 증가하고 있으며 정유사들은 정제능력 및 투자확충, 신규 유전의 개발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경제지표

환율

통 화	8-AUG	13-AUG	증감(%)	2012평균
USD	1,112.5	1,116.0	▲0.31	1,126.54
EUR	1,484.63	1,483.61	▼0.07	1,447.67
JYP100	1,155.0	1,140.87	▼1.22	1,413.29
CNY	181.74	182.23	▲0.27	178.54
$/EUR	1.3393	1.3236	▼1.17	1.2851

주가지수

	8-AUG	13-AUG	증감(%)	2012평균
KOSPI	1,878.33	1,913.03	▲1.85	1,930.37
DOW	15,498.32	15,451.01	▼0.31	12,959.04
상해종합	2,044.90	2,106.16	▲3.00	2,218.07
영국FTSE100	6,259.68	6,611.94	▲5.63	5,729.71

리보금리

(UNIT:%)	7-JUL	7-AUG	증감(%)	YEAR AGO
1M	0.19	0.19	-	0.24
3M	0.27	0.27	-	0.49
6M	0.41	0.40	▼2.44	0.75
1Y	0.69	0.67	▼2.90	1.07

미국채 수익률

(UNIT:%)	8-AUG	13-AUG	증감(BP)	2012평균
3M	0.05	0.06	▲0.01	0.09
10Y	2.58	2.71	▲0.13	1.80
30Y	3.65	3.75	▲0.10	2.92

EU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11	2012	MAY-13	JUN-13	증감
경제신뢰지수	101.5	90.2	89.40	91.30	▲1.9
제조업PMI	52.2	46.2	48.30	48.80	▲0.5
소비자신뢰지수	-14.3	-22.3	-21.90	-18.80	▲3.1

미국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11	2012	MAY-13	JUN-13	증감
ISM제조업지수	55.2	51.7	49.00	50.90	▲1.9
ISM비제조업지수	54.5	54.6	53.70	52.20	▼1.5
소비자신뢰지수	58.1	68.7	76.20	81.40	▲5.2

주간 이슈

▶ 정부, 과세 특례 통해 '조선·해운·건설업' 구조조정 지원

○ 10일 기획재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 과세특례 요건'에 조선, 해운,건설업 3개 업종을 포함시키기로 함

○ 본 특례를 적용하면 기업이 합병 후 1년 내 용도가 유사한 중복자산(합병당사법인-분할합병의 경우를 포함-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던 자산으로서 그 용도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용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일이 속한 해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합병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하면 중복자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3년 거치 후 3년 분할 조건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되며 2014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이들 업종이 전반적인 불황 여파로 구조조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중복자산 양도차익이 재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힘

▶ 중국 화물선 북극 항로 첫 출항

○ 11일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중국 국영해운기업인 COSCO는 지난 8일 자사 소속 19,461톤급 융성호가 대련항에서 북극항로를 통해 네덜란드 로테르담을 향해 출발한 것으로 나타남. 융성호는 베링 해협을 통과 후 동시베리아해, 빌키츠키 해협, 노르카프를 지나 로테르담에 도착할 예정임

○ COSCO사는 해상 효율성 측면에서 북극항로는 전통적 노선대비 12~15일가량 운행기간 단축이 기대되며, 융성호는 다음달 11일 로테르담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힘. 또한 황금뱃길로 불리는 북극항로로 세계 해상운송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함

▶ 우크라이나, 기록적인 옥수수 수확량 전망

○ 우크라이나 농무부처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2013년 옥수수 수확량이 지난해 대비 20% 높은 수준인 2,500만톤 이상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앞서 해당 부처는 올해 옥수수 수확량 예상치 2,200만-2,300만톤을 제시한 바 있으나 7월 한 달 내내, 그리고 8월초 옥수수 재배에 적합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이와 같이 전망치를 상향 수정한 것으로 나타남

○ 농무부의 리포트에 따르면 7월23일 기준 우크라이나의 작물 수확량은 2,350만톤을 기록했으며 밀 1,720만톤, 보리 560만톤, 호밀 34만1천톤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우크라이나 농무부는 2013년 작물 수확량은 5,300~5,400만톤으로 전망했으며 2012년에는 4,620만톤을 생산한 바 있음

▶ 영국, 2001년 이래 최악의 밀 작황 예상

○ 최근 약 10년 내 영국의 밀 수확량이 기상악화등의 요인으로 인해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밀수입 수요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 밀 생산자 들은 수확량은 감소하겠지만 2012년에 대비해서는 고품질의 밀 생산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2년 영국은 사상 2번째로 많은 강우량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짐

○ Home-Grown Cereals Authority (HGCA)의 조사에 의하면 올해 영국의 밀 수확은 19%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트레이더들은 지난 시즌의 1,330만톤에 못 미치는 1,200만톤 선으로 전망하였음

○ 지난 해 밀 품질 하락으로 인하여 영국은 독일산 밀에 크게 의존한 바 있으며 영국은 본래 밀 순 수출국으로 연간 250만톤을 스페인, 네덜란드 등으로 수출하며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으로부터 연간 100만톤 가량을 수입해온 바 있음

▶ 중국 JEHI, 벌커 2척 리세일

○ 중국 Jiangsu Eastern Heavy Indusry(JEHI)사가 7,8000톤급 벌커 2척을 SwissMarine사와 리세일 매각을 성사 시킨 것으로 나타남

○ 리세일 가격은 총 4,400만불이며 지난 2008년 크로아티아 선주 Atlantska Plovidba사가 JEHI사에 척당 4,500만불에 동 선박 2척을 발주 하였으나 지난 달 건조계약을 취소한 바 있음

MEIC 포커스

◎ 세계 선박금융 시장의 변화와 그리스 선박금융시장 ◎

선박금융 시장의 침체는 굳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며 특히 전 세계 선박금융시장의 거의 80%를 점유하던 유럽계 은행들은 2011년 유럽금융위기 이후로 선박금융 규모를 축소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바젤협약Ⅲ로 인한 자본건전성 개선에 있는데 EU 금융감독기관들의 은행자산건전성의 규제는 현재 위험가중자산으로 취급받고 있는 선박금융의 대출여력을 감소시키고 있다. 여기에 선박금융 대출조건과 함께 장기적인 해운 불경기도 선박 투자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더불어 전 세계 선박금융의 위축은 아이러니하지만 그 동안 문제시 되었던 투기적 선박투자를 억제시키고 낮은 신조선 가격과 함께 연료 효율성이 증대된 그린쉽 및 대형화에 대한 투자도 자제시키고 있어 초과 공급된 해운시장이 균형을 찾아 나가는데도 순기능 역할도 하고 있다.

선박금융 대출조건의 변화

(offshore, LNG/LPG를 제외한 상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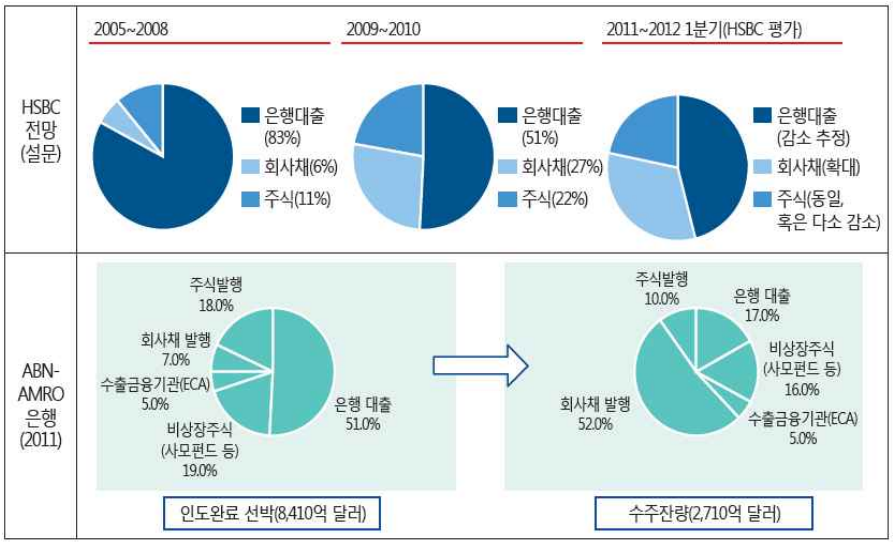
구분	유럽 금융위기 전	유럽금융위기 이후
이자율	LIBOR+1%이하	LIBOR+3%이상
만기	10년 이상	5년~7년
레버리지 비중	80%	50~60%
신디케이션	구성 용이	구성 어려움
선가지급구조	20-20-20-20-20	10-10-10-10-60

자료: HSBC, KIS Credit Monitor 재인용

따라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선사입장에서는 주식 및 회사채 등을 통한 직접자금조달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클락슨에 따르면 2012년 전체 선박투자의 약 40%가 직접자금조달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직접자금조달 수단 중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은 선박투자의 매력이 감소함에 따라 한계에 도달하고 있지만 선사 자체 신용도에 의한 회사채 발행은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장기간의 선박금융에 비해 단기 회사채의 발행은 만기 도달 시기의 선사의 자금 유동성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자국내 조선산업이 비중이 큰 국가들의 ECA(수출정책금융기관) 금융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2011년말 100억 달러에서 2012년 140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조선사에 대한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은 2011년 기준으로 전체자금 소유의 61.2%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선박금융의 조달원 변화전망



자료: KIET 산업경제

세계 선박금융의 트렌드를 살펴보다 과연 유럽 금융위기 시발점 있었던 그리스의 선주들은 현재의 시기를 어떻게 넘기고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었다. 관련 자료를 찾다보니 Petrofin bank research에서 나온 그리스 선박금융 2012년 현황 보고서가 있어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그리스 선박금융 전체 규모는 2011년 USD67,694M에서 2012년 65,780M으로 전년대비 2.8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리스 선박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을 분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1. offshore를 제외한 해운 불경기의 지속, 2. 계속되는 선박의 수익과 가치의 감소, 3. 폐선에 비해 만성적인 선박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불균형, 4. 은행의 대손충당금 및 구조조정 및 부도 증가 5. 그리스와 유럽의 경제 및 금융위기 상황, 6. 대출조건의 강화로 인한 대출 감소, 7. 전 세계 및 그리스 선박금융은행의 감소로 들 수 있다.

그리스 선박금융 규모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성장률(%)		28.66	20.19	26.61	11.62	28.45	44.31	9.39	-8.78	-1.17	2.20	**-2.83**
그리스 선박금융 규모(USD/m)	16,525	21,261	25,554	32,353	36,112	46,387	66,941	73,228	67,020	66,235	67,694	**65,780**
자료: Petrofin bank research 2013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리스 은행 단독으로 대출한 금액은 2012년도 USD12,705M으로 2011년도의 14,517M에 비해 12.49% 감소하였는데, 그리스 금융위기를 감안하면 선박투자규모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은행들과 그리스 은행의 포트폴리오 투자 규모는 USD33,914M으로 2011년도에 비해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순히 그리스 은행을 제외한 국제은행들의 선박투자는 USD19,161M로 오히려 2011년에 비해 7.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그리스 선사에 투자한 은행들은 그리스 은행 9개를 포함한 51개 은행들로 영국계 은행들의 투자가 USD13,581M로 그리스 선주와 영국계 은행들간의 전통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으며 유럽 전체로 파악하면 USD60,500M으로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일본, 한국 등의 동 아시아 은행이 총 6개로 그 투자규모는 USD3,000M으로 2010년 USD1,050M을 감안하면 최근 ECA를 중심으로 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세계 선박금융시장의 위축 속에서도 2001년부터 그리스 선박금융 규모는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해운불황 이후에도 그 투자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기 속에서도 그리스 은행이 여전히 그 투자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그리스 선주와 영국계 은행간의 밀접한 인적 네트워크도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그리스 선박금융시장에서 KFW, ABN AMRO, Citi, DVB, Nordea, Bremer, Nord LB, Credit Suisse 등의 세계적인 선박투자기관들이 투자가 2011년에 비해 증대한 것과 미국 사모펀드의 투자가 크게 증대한 것도 그 원인을 분석해 볼 가치가 있는데 이는 다음 포커스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끝)

MEIC 패널리스트 현황	
케이프	네오차터링, 삼정해운, 일도해운, 장수해운, Rodskog
파나막스	네오차터링, 에이스차터링, 일도해운, 장수해운
수프라막스	아라해운, 일도해운, GS차터링, 영해해운
핸디	아라해운, 일도해운, GS차터링
신조선 가격	자이로마리타임, 장수에스엔피, 한바다코퍼레이션, 코리아마리타임, 훼어브릿지글로벌
중고선 가격	자이로마리타임, 장수에스엔피, 킴스마리타임, 한원마리타임, 코리아마리타임, 훼어브릿지글로벌

※ 본 자료는 해운시황의 이해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어떠한 법적 책임소재 또는 증빙이 될 수 없음을 밝힙니다.
※ 본 리포트는 추후 유료로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Contact Details
주 소: 부산시 진구 중앙대로 955 부산발전연구원 9층 해운거래정보센터
연락처: TEL (051) 860-8890 FAX (051) 860-8899 E-mail meic@bdi.re.kr